

기록학과 쓰기

Archives and Writing

이영남(Lee, Youngnam)*

1. 머리말
2. 대통령기록과 쓰기
 - 1) 대통령행사기록과 관찰
 - 2)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
3. 시민기록과 쓰기
 - 1)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와 관찰
 - 2) 활동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
4. 쓰기, 몇 가지 단상
 - 1) 기록관리와 쓰기의 공생
 - 2) 관찰의 실천적 함의
 - 3) 이야기 기술서
5. 쓰기의 이미지 : 맺음말을 대신하여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durtkrk@gmail.com).

■ 투고일: 2021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2년 01월 19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1월 24일.

■ 기록학연구 71, 169-236,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2.71.169>

〈초록〉

이 글은 기록학의 관점에서 쓰기를 다룬 연구이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래서 기록학이 지난 20년 동안 구축했던 기록관리와 쓰기를 연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것은 기록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쓰기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 기록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가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와 쓰기가 공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 둘의 상호작용과 효과에 대해 탐구했다.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 사례를 분석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첫째, 대통령기록과 쓰기의 사례이다. 대통령의 말을 기록화 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쓰기에 관한 것이다. 둘째, 시민기록과 쓰기의 사례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아카이브 워크숍에 참여해 자기 단체의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쓰기에 관한 것이다. 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계적 가치에 주목했다. 쓰기는 하나의 기록실천인데, 그 요지는 관계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일 것이다.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에 요구되는 관계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탁, 안부, 관찰, 대화’에 주목했다. 기록관리와 쓰기의 공생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경우 관계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진다.

주제어 : 글쓰기, 읽기, 목록, 낭독, 듣기, 대화, 증언, 이야기, 관계, 정리와 기술, 부탁, 안부, 관찰, 공생, 아카이브 워크숍, 대통령,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rchives and writing. Writing is an big issue these days. Archival studies need to be interested with writings. It's not just about writing skills. Archival studies have to try archiving more good relationships. Symbiotic approach can be worth the effort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writing in archives workshop. Archives workshop is a good place where writing and archiving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s. Writing is an archival try to invite the values of ‘requests, inquiring after, observes, conversation’ to archives. These archival practices can contribute the symbiotic approach to constructed archives.

Keywords : writing, reading, listening, conversation, testimony, narrative, relationship, arrangement and description, archives workshop, president, activists, NPO, NGO

1. 머리말

이 글은 기록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전개될 수 있는 쓰기에 대한 탐구이다. 특히 기록관리와 쓰기의 공생적 상황에서 이 둘의 상호작용과 그 효과에 대한 탐구에 주목했다. 현재의 기록학은 기록관리를 뼈대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출현할 수 있는 쓰기를 논점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의 쓰기는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행이나 기술일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쓰기는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록관리와 공존하는 ‘사회적 생명’일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 둘의 가능성을 같이 다룬다.

비교가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두 개의 사례를 분석했다. 첫째, 대통령기록과 쓰기이다.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에서도 핵심적인 기록이다. 대통령기록에는 대통령의 말이 있다.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문서행위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참석한 대통령행사에서 말을 하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이 글의 초점은 말이다. 대통령의 말을 기록화 하는 과정에서 쓰기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 의미는 무엇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탐구대상이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시민기록과 쓰기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아카이브 워크숍에 참여해 자기 단체의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쓰기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못지않게 시민사회단체의 기록관리도 중요하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 글은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아카이브 워크숍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워크숍은 2021년 여름에 열렸다. 경기도 안산에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5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쓰기는 단순할 수 있다. 쓰기는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이 단어들을 일정한 문법적 질서에 따라 배치하여 문장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의 쓰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글을 잘 쓰느냐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논점은 여러 개의 기록행위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형식적 차원에서 나온다. 쓰기 뿐만 아니라, 읽기, 듣기, 대화가 함께 존재하는 쓰기 상황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쓰기만 단독으로 전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냄새도 맡고 맛도 느끼면서, 심지어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다. 쓰기도 마찬가지이다. 혼자서 조용히 글을 쓰는 경우에도 쓰기는 읽기(묵독)와 함께 전개된다. 자신이 쓰고 있는 문장을, 읽지 않고는 그 문장을 완성할 수 없다. 읽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기는 완성될 수 없다. 쓰기와 읽기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 쓰는 경우는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다. 읽기는 낭독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듣기가 발생하고, 듣기 이후에는 대화가 이어진다. 쓰기-읽기-듣기-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록행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쓰기를 다루려면 이런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쓰기의 복잡성을 ‘다술적 쓰기’로 정리하여 논의할 것이다.

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쓰기의 이유에는 뭔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추구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계적 가치에 주목했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또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 거주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관계에서 그 관계를 보다 낮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관계적 가치는 여기에서 나온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관계적 가치는 '부탁, 안부, 관찰, 대화'이다. 이런 관계적 가치는 공공기관 기록관리에는 낯선 존재들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기초는 인간적 부탁보다는 규정(법률, 지침, 표준 등)에 따른 지시에서 나온다. 공공기관 기록관리는 안부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일보다는 조직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집행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찬찬한 관찰보다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업무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다. 객관적 평가는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규정,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집행, 객관적 평가시스템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쓰기의 관점에서 기록관리를 살펴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기록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록관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 새로운 공간에서 의외의 기록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를 나온다는 것. 이런 가능성이 기록관리 옆에 놓여있다. 정보공개, 구술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관리 옆에 쓰기가 있다. 기록관리와 쓰기가 서로 연결되는 기록상황, 나아가 공생을 모색하는 기록상황을 상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기록관리 관행만을 고수할 수 없다. 관계적 가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두 개의 사례를 검토하는데, 여기에는 필자의 직무상 경험이 들어 있다. 한 개인의 경험은 조각이다. 하나의 조각을 전체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일반화를 시도할 수도 없다. 그래도 조각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있다. 미시적 접근을 하면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시도할 경우, 조각은 새로운 논점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일할 당시는 의식하지 못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 당사자의 경험이 넓어지고, 생각도 변하고, 사회적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하면, 과거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향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다. 새롭고 독립적인 의미가 되어 경험의 장에 다시 입장한다. 과거는 회상의 대상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는 현재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와 현재의 대화는 당시 체험을 새로운 논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쓸모가 있는 사회적 경험을 구성하는 시도가 된다.

2. 대통령기록과 쓰기

1) 대통령행사기록과 관찰

(1) 대통령의 말을 기록하기

한국현대사에서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되었다. 제도, 조직, 인력, 정책 등 대통령기록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구비되었다.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기록관리비서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관리하다가 임기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을 이관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면서 전임대통령과 국민에게 기록서비스를 수행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대통령 생산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대통령기록관리 기본적인 절차와 관행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정비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 혁신을 대통령 직무수행의 일부로 이해했다.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기록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그 인식을 일관되게 관철하는 의지는 중요하다. 대통령의 정확한 기록인식은 공공기록관리 전반도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기록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범이 되었던 대통령이다(이영남, 2020. 조영삼, 2011).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업무에 참여했었다(2004-2008).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되는 문서(예. 대통령 보고서), 사진(예. 대통령 사진), 행정박물(예. 대통령 선물), 대통령의 말(예. 대통령 행사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에 속했다. 필자의 업무경험에 기초해 기록관리에 관한 새로운 논점을 하나 제안해본다. 그것은 ‘기록관리에서 관찰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것인데, 기록관에서 쓰기에 관한 논의도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은 사물, 현상, 사람을 주의력 있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판단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을 기록한 두 명의 기록자에 주목하게 된다. 편의상 제1의 기록자, 제2의 기록자로 구분해서 서술한다. 제1의 기록자는 기록관리비서관이었다. 당시 기록관리비서관은 대통령기록관리법과 공공기록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기록관리비서관은 법률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도 하였다. 후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통령 행사 현장에서 대통령을 관찰하며 대통령 행사기록을 수집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 관찰자로서 역할과 활동은 수단적이고 보조적이었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임무이면서 새로운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행위는 아니었다. 관찰의 독자성과 생산성에 대해서는 2장 2절에서 서술한다. 기록관리비서관의 관찰은 수단으로서 보조적 성격을 갖는 제한적인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관찰이 기록관리 관행이었고, 그 관찰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관리의 일부’였다는 점이다. 기록관리비서관이 제한적 관찰자가 되어 활동했던 기록관리상의 이유와 그 방식을 살펴본다.

대통령 행사 현장에서 대통령의 말을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사회적 갈등을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여기에서 대립되는 정치세력 사이의 논쟁과 설득의 언어적 과정은 핵심적이다. 요컨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인 논쟁과 설득의 정치에서 말은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이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정치인의 말은 그 사람과 그가 속해 있는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정치사상과 철학의 표현이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통령은 존재하고 그에 필요한 권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은 말로 국가를 통치한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 정책적 함의 등은 대통령의 말에서 읽을 수 있다. 대통령의 말에는 세상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분명한 목표와 방법이 들어 있다(윤태영, 2016; schattschneider, 2008).

대통령 말의 기록화는 대통령기록관리의 절반이다. 행정이 문서로 기반으로 한다면 정치의 말은 기반으로 한다. 대통령은 문서행위와 정치적 말을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대통령의 문서행위와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기록관리의 양대 물줄기이다. 문서로 보고받고 문서로 지

시하는 대통령의 문서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의 문서행위와 형태상으로는 다르지 않다. 물론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제도처럼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 대통령 퇴임 후에 특별하게 기록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 등의 차이점도 있지만, 기록관리상의 일반적인 절차와 관행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대통령 말의 기록화는 다른 관행을 요구한다. 대통령기록에서 특이점은 ‘말의 기록화’이다. 대통령의 말은 특정한 정치적, 법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정책으로 실현되거나 국가정책의 정치적 맥락을 제공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하는 말을 기록화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리에서도 핵심적이다. 기록관리비서관은 대통령 행사에 배석하여 대통령의 말을 기록해야 한다. 관찰은 여기에서 등장한다.

(2) 기록관리에 접혀진 관찰

접는 행위는 전체 크기는 유지하면서도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신문은 그 자체로는 주머니에 넣을 수 없지만, 여러 겹으로 접을 경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꺼내서 펼치게 되면 신문의 크기와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신문을 접는 행위는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동, 소통, 유지하는데에 유용한 행위이다. 인간의 뇌는 거대한 주름 모양으로 접혀 있다. 뇌가 접혀져 있지 않다면 두개골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 뇌는 접혀짐의 상태로 유지되면서 두개골의 보호를 받으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이 자유자재로 방대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접혀져 있어서 가능하다. 관찰도 대통령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접혀진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기록관리기준표, 등록, 분류, 편철 등은 문서의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익숙한 기록관리제도이다. 그러나 관찰은 대통령의 말을 기록하기 위

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관행이지만 기록관리상에는 낯설게 자리를 잡고 있다. 낯선 것을 의식적으로 대할 때는 낯설게 하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낯선 존재를 익숙한 말로 포섭하려는 것은 개별성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낯선 말로 설명하기를 시도할 경우, 낯선 말이 주는 생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존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의 발견이다. 관찰이라는 낯선 존재를 기록관리에서는 낯선 말인 ‘접힘과 펼쳐짐’의 구도로 서술한다. 접혀진 관찰은 2장 1절에서, 펼쳐진 관찰은 2장 2절에서 서술한다.

기록관리에서 관찰은 낯선 존재이다. 기록관리의 대상이 되는 문서 행위에는 관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관리에 접혀진 관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말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기록관리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통령 행사의 기록화에 대비한다. 대통령 행사가 개최되는 시간에 기록관리비서관은 녹음기와 수첩을 들고 대통령 행사에 배석한다. 녹음기는 대통령 좌석 근처에 보이지 않게 미리 놓아둔다. 그리고는 행사 시간 내내 대통령을 시야의 중심에 두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말이 하는 말과 그 말의 상황적 맥락을 수첩에 메모한다. 누가 말하는지, 발음이 명료한지, 심지어 표정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관찰대상이 된다.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다. 말의 의도와 맥락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녹음기에 녹음되지는 않는다. 관찰자가 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고 기억해둠으로써 말은 맥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말의 맥락을 유지하는 또 다른 행위는 수집이다. 기록관리비서관은 행사가 종료되고 대통령이 행사장을 떠난 다음에는,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문서를 수집한다. 회의자료, 대통령의 친필메모 등이 수집된다. 현장에서 수집하지 못한 기록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대통령 사진사가 찍은 사진은 추후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담당 비서관실로부터 이관을 받는다. 대통령이 하는 말의 맥락은 현장의 관찰과 수집된 문서로 유지한다.

특히 관찰자의 수첩과 기억은 뒤이어 이어지는 녹취록 작성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일은 1차적으로 속기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속기사는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들으며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함에 봉착하곤 한다. 발음의 부정확함과 애매함, 발언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불명확함, 맥락 없이 던져지는 발언 등이 그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글로 옮기려면 현장에 있었던 기록관리비서관의 수첩과 기억이 필수적이다. 녹취록이 완성되면 수첩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비서관은 관찰자 수첩을 없애지 않고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찰자의 수첩은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과정의 일부로 관리되다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이관 받은 후 기록서비스에 임하게 된다. 대통령 행사기록도 기록서비스의 대상이다. 대통령 행사기록은 ‘회의자료, 대통령 말씀참고자료, 대통령의 친필메모, 행사 사진, 참석자명단, 회의 일정표, 녹음파일, 녹취록, 그리고 기록관리비서관 수첩’ 등으로 구성이 된다. 대통령 메모는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대통령 메모에는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고민의 일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메모 266건을 2019년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의 친필메모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렸다. 한 방송국에서는 대통령 메모를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뉴스타파, “씩어빠진 언론”, 2019.5.21.). 이 다큐멘터리는 대통령 메모와 구술증언이 교차되면

서 제작되었다. 구술증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회고 형식의 증언을 말한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컸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70만회를 넘을 정도이다. 이런 관심에는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존재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들어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 친필메모를 통해 대통령과 국가정책의 정치적 맥락을 알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눈으로 다큐멘터리를 살펴보면 아쉬움이 있다. 다큐멘터리에는 대통령 행사기록의 일부만 담겨 있다. 대통령 행사기록을 구성하는 녹음파일(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현장사진, 회의자료, 대통령 말씀참고자료, 관찰자의 수첩과 이것을 토대로 한 기록관리비서관의 증언 등은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행사기록이 교차가 되었다면, 대통령 메모에는 보다 입체적인 맥락이 담겼을 것이다. 물론 다큐멘터리 제작상의 한계는 아니라고 본다. 기록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록관리 측면상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맥락을 충분히 제공했을까 하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 행사기록의 생산맥락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는가 하는 것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는 대통령기록을 이용해서 제작한 방송콘텐츠이다. 방송사의 제작의도에 따라 행사기록의 일부만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오히려 대통령 행사기록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친필메모라는 특징적인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서비스를 받아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대통령 행사기록이 완전히 공개가 되고 생산맥락이 충분히 서비스 된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진다. 아카이브가 사회에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행사기록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대통령 행사기록을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일은,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서비스 하는 일이기도 하다.

관찰의 측면에서 대통령기록관리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의의와 한계로 구분해서 요약해본다. <대통령 말의 기록화>는 대통령기록관리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가치의 측면에서 대통령기록의 절반에 해당한다. 대통령 행사기록은 대통령의 행사가 있어 발생한 기록이 기보다는, 대통령기록관리의 필요상 대통령이 하는 말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록이다. 이 관점이 관찰이 기록관리에 접혀진 근거이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말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이해한다면, 기록관리에 접혀진 관찰은 설명책임성을 위한 노력이다. 임기 중에는 관찰이 있어 기록화가 보다 충실해지고, 임기 후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서비스를 수행할 때 생산맥락이 제공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기록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제 1의 기록자의 관찰은 기록관리상의 독립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 행사기록 기록화 과정에서 발생한 관찰은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논의에서 관찰이 논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아직 쓰기는 출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찰과 쓰기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기록관리비서관이 현장에서 대통령을 관찰하며 수첩에 메모하는 것은 기록자의 고유한 생각과 독립된 언어로 보기는 힘들다.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받아 적는 것,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위주로 메모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메모는 쓰기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쓰기의 신체적 행위 자체는 쓰기 분석에서 필요한 논점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쓰기는 쓰는 사람의 고유한 생각과 언어로 진행될 때의 쓰기에 한정된다. 만약 퇴임한 기록관리비

서관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대통령 행사기록을 열람하며 ‘특정한 구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다시 쓰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쓰기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리법이 규정하는 대통령기록관리에서 관찰과 쓰기는 아직은 독립적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접혀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

2)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

(1) 제2의 기록자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판단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을 기록한 두 명의 기록자에 주목하게 된다고 했고, 편의상 제1의 기록자, 제2의 기록자로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1의 기록자에게 관찰은 기록관리 규정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따라서 기록관리에 접혀진 관찰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성격의 관찰이라는 한계성을 가진다. 이제는 제2의 기록자의 관찰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논점을 살펴볼 차례이다.

제2의 기록자는 당시 ‘대변인, 1부속실장, 연설기획비서관’ 등의 직책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관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는 10년의 시간(2000년~2009년)을 노무현의 말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청와대에 있었던 시기(2003년~2007년)에는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받아 적는 것이 직업이었을 정도였다. 그 결과물로 500여 권에 달하는 휴대용 수첩, 100권의 업무수첩, 그리고 약 1,400여 개의 한글 파일이 나왔다. 어떤 임명장을 받긴 그는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수행했다. 특히 연설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전달하는 자리였다(윤태영, 2014a; 2014b; 2016).

그는 이런 말을 한다. “제1부속실장으로서의 기본 업무가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더욱 집중했다. 주요 회의나 개인 일정에 배석하여 기록하는 것이 나의 주 업무가 되었다.”(윤태영, 2014a, 17). 마치 생명 탄생의 기본질서인 세포분열을 연상시키는 문장이다. 1부속실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서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의 대상인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통상적인 문서행위와는 별개의 기록행동이다. 1부속실장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별도로 있었고, 그것은 문서행위로 집행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별도의 독립된 일이었다.

대변인, 1부속실장, 연설기획비서관의 업무는 국가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의 직제규정에 따른 것이다. 직제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록은 대통령기록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따라 기록관리의 엄밀한 관리대상이 된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은 간결하게 말한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마땅히 문서로 생산하라, 그렇게 생산되는 기록물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록관리비서관이 관리하라, 그리고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 서비스에 임하라>. 감정이 섞이지 않은 이러한 언명에서 오히려 진지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록관리상의 현상적 사실과는 별개로, 제2의 기록자에 의해 수행된 관찰은 기록관리 규정의 바깥에서 발생한 새로운 기록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의 기록자의 관찰은 펼쳐진 관찰이었다. 접힘과 펼쳐짐의 구도로 비교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것인가, 부탁에 의한 것인가. 관찰이 쓰기로 이어졌는가. 쓰기로 이어졌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기록행위가 출현했는가. 펼쳐진 관찰은 부탁에 의해 전개되었고, 쓰기로 이어졌으며, 쓰기와 더불어 읽기가 출현했다. 접혀진 신문은 한 조각만을 보여주지만, 펼쳐진 신문은 여러 조각을 보여준다. 펼쳐진 관찰은 공공기록관리

에 보이지 않던 여러 조각을 보여준다. 하나씩 살펴본다.

(2) 부탁

‘기록관리에 접혀진 관찰’의 한계에 대해 말했지만, 관찰은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된 업무였다. 물론 대통령기록관리법령에 관찰에 관한 것이 조항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령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기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기록관리비서관은 대통령 행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관찰을 적용할 수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매뉴얼에는 대통령 행사의 기록화를 위해 상세한 지침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관찰에 관한 지침이 들어 있다. 제1의 기록자가 수행하는 관찰은 ‘규정의 지시’에 따른 관찰이다.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또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상급자는 규정이다. 지시하는 사람의 특정한 인격이 아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일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이 합리적이고 지시가 정당할 때의 지시와 복종의 관계는 설명과 납득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지시하는 자는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하고, 복종하는 자는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지시를 이행할 수 있다. 한편, 규정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운영에 혼란이 온다. 처벌에는 ‘배제’나 ‘불이익’도 포함이 된다. 규정 아래에 상존하는 처벌의 가능성은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처벌과 위협은 인간의 자발적 행동을 제한한다.

제2의 기록자의 관찰은 대통령의 부탁으로 시작되었다. ‘부탁’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비서관에게 ‘~해

줄래요?’ 하면서 부탁했다는 그런 현상적인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권위를 갖고 지시하는 자리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관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 “체력과 집중력이 허락한다면, 내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나 행사에 자유롭게 배석하도록 하게나.”(윤태영, 2014a, 17).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은 그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부당한 지시와 복종이 아닌,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와 복종의 정당한 관계는 설명과 납득의 합리적 관계이다. 위계적인 공적 조직의 업무수행에서는 필요한 관계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자인 제2의 기록자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특권으로 받아들였다(윤태영, 2014a).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그는 특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재량을 발휘하며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신뢰가 바탕에 있을 때 가능하다. 신뢰에서 자유로운 행동이 나온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율성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재량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관찰하고 기록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현상적으로는 지시이지만 심층적으로는 특별한 부탁이었다.

부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행동을 상대방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과 자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때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을 받는 사람은 상호간에 평등하면서 동지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반면, 현상적으로는 부탁이더라도 부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만약 부탁을 받게 되는 사람이 그 부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행과정에 대한 감시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부탁이 될 수 없다. 이행과정에 대한 감시는 적법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한 간섭, 그리고 미흡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부탁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요이다. 부탁은 긍정의 언

어를 사용한다. 부탁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함께 원하는 것(긍정)에 관한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원하지 않는 부정에 속한다. 반면, ‘정직하게 살라’는 긍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부탁은 긍정을 위한 노력이다(Rosenberg, 2017).

제2의 기록자는 대통령의 부탁으로,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일일이 경과보고를 하면서 관찰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만약 대통령이 제2의 기록자에게 한 말이 대통령의 통상적인 지시였다면, 제2의 기록자는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는 비서관으로서 지시이행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지시자인 대통령은 지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한다. 부탁은 통상적인 지시-복종관계에서 나올 수 없다. 대통령은 지시-복종의 관계보다는 부탁-이행의 관계를 원했다.

대통령은 관찰자를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 했다. 대통령의 부탁은 ‘옹세 하는 대통령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말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관이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한 태도와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정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에 대한 윤리적 모색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실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관찰자를 매순간 곁에 두어 스스로를 절제하려고 노력했다. 관찰자는 대통령과 오랜 시간 현장에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지지대로 생각하면서 대통령과는 동지적 관계로 묶여 있다고 인식했다. 관찰자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올바른 대통령직 수행이라는 목적을 공유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기록화 되어 대통령의 생각을 수행해야

할 보좌진에게 전달되었다(문재인, 2011. 윤태영, 2014a; 2014b; 2016).

대통령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관찰하고 기록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물론 제1의 기록자인 기록관리비서관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행사에 배석해서 기록을 수집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법의 바깥에서 걸어온 또 한 명의 기록자도 있었다. 때로 제1의 기록자가 없는 곳에도 제2의 기록자는 있었다. 제2의 기록자는 대통령의 부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수행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첫째, 평등에 관한 것이다. 계몽주의 철학에 따를 경우, 평등은 하나의 실천의지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각기 목적이다. 목적인 한에서 인간은 동등하다. 불평등은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발생한다. 평등은 개성 발달의 조건이 된다(Fromm, 2009). 부탁은 평등한 관계에서 나온다. 평등한 관계에서 전개되는 작업은 자발성을 기초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개성이 발달될 수 있다. 위계적인 관계인 관료제 조직에서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전문직이 근무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공공기록관리가 조직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의무에 관한 것이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숭고한 의무이다. 마음에 의무를 담고 있는 사람은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의무의 이행은 간단한 일이 될 수 없다. 숭고함의 실천은 고단한 육체노동으로 이어진다. “나는 비공식 또는 개인 일정에 배석해서 기록하는 일을 겸했다.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했다. 처음 1년은 수첩에 펜으로 적었다.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에 생긴 펜혹이 몇 달 만에 사마귀처럼 커졌다. 통증도 심했다. 쓰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대통령 말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회의 종료를 선

언하고 일어난 후에도 서서 10여 분을 더 이야기하기도 했다. 비밀비재 한 일이었다. 결국 1년이 지날 무렵 견딜 수 없어 수첩 대신 노트북을 선택했다. 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었다. 기록 작업은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어깨가 아팠다.”(윤태영, 2104a, 47-48). 수백 권에 달하는 휴대용 포켓 수첩, 1백 권에 달하는 업무 수첩, 1,400여 개의 한글 파일은 일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그 성격은 열정의 소산이자 한 사람의 육체에서 나온 기록노동이라는 점, 그리고 숭고한 의무의 실천이라는 점일 것이다.

(3) 쓰기와 기억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퇴임 후에는 새로운 단계인 쓰기로 이어졌다. 퇴임 후 1년이 조금 지난 2009년 5월, 대통령이 서거했다. 죽음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멈추게 했다.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기록이 멈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기억의 방향은 반대였다. 기억은 망각으로부터 돌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극적 죽음은 그 사람을 회상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했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은 어지럼증, 불면증, 죄책감, 무력감으로 보내야 했고, 애써 잠들면 망자가 꿈에 나타나 깨어 있을 때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생생한 기억이 되어 돌아와, 고통 속에서 증식했다. 그런데 그 증식은 무질서하지 않았다.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듯이, 일련의 기록행동으로 기억의 증식에서 어떤 뚜렷한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찬찬한 쓰기를 통해 기억은 정돈되기 시작했다(윤태영, 2014b).

쓰기와 기억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개체의 발생은 그 개체가 속한 종의 장구한 진화를 반복하는 것이다. 역사적 접근은 쓰기의 기억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레테(Lethe, 망각을 담당하는 신)의 강을 지나 저승에 갔다고 한다. 레테는 강물이 되어 망자의 발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살면서 겪었던 비통함을 씻어낸다. 누구라도 자기가 발바닥을 찍으며 살았던 순간이 그 사람의 고유한 기억이다. 언젠가 가혹한 운명에 처해 사방팔방 혼자 남아 칙흑의 어둠을 걸을 때가 온다면, 그 사람은 순전히 발바닥의 감각에 의지해서 걸어야 한다. 한 마을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을활동을 하며 직관을 믿게 되었다.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직관적 판단이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다. 직관은 마을활동 과정에서 그때그때 생긴 감각의 축적으로 얻은 산물이란 생각이 든다.”(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41). 여기서 발바닥의 감각은 직관의 은유이다. 직관은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보다는 자신이 직접 발바닥을 찍은 곳에서 생긴다. 레테에게 지상의 기억을 건네준 망자는 육체를 상실한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망자들의 기억은 폐기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이관된다. 이로써 기억이 존재하는 장소가 변경된다.

서늘해진 저녁 무렵이면 강가에 므네모시네(Mnemosyne, 기억을 담당하는 신)가 나타난다. 그녀는 어딜 다녀도 혼자 다니지 않는다. 그녀의 딸들인 9명의 뮤즈들과 헤르메스(전령의 신)가 동행한다. 뮤즈들은 헤르메스의 연주에 맞춰 다채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운 선율이 석양을 받으며 저녁 강가에 낮게 퍼지는 순간, 어디선가 시인이 나타난다. 시인은 뮤즈들의 노래에 실린, 현재에 있고 과거에 있었으며 미래에 있게 될 것을 꿰뚫게 된다. 그러나 앓은 오히려 갈증을 유발한다. 시인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목도하면서도 그 둘을 연결할 수 없어, 심한 목마름에 직면하게 된다. 시인은 므네모시네에게 다가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청한다. 므네모시네는 가련한 시인을 연민의 마음으로 환대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기억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한다. 샘물은 맑고 차다. 그런데 레테가 망자의 발에서

씻어낸 기억이 잔해가 되어 떠 있는 물이다. 시인은 직감한다. 기억의 잔해를 마셔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음을. 물을 마시면서 시인은 그림자(죽은 사람)를 대신하게 된다. 시인은 세상으로 돌아가 망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망자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망자의 그림자는 이 지상에 더는 보이지 않지만, 그를 대신하는 시인이 있어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기억하게 된다(Illich & Sanders, 2016).

구술문화의 전통에서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은 일정한 운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했다. 그 후 문자가 퍼지면서 구송시인들의 시가 문자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경에 나왔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쓴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었다. ‘쓴다’는 개념이 생긴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시인이 암송하는 시를 문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문자로 표기한다는 사실만 있었다. 문자를 다루는 일은 타이피스트의 타이핑, 속기사의 녹취록 작업과 유사했다. 문자로 표기된 텍스트의 권위는 누가 문자 표기작업을 했느냐보다는, 어떤 시인의 암송을 받아 적었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오래된 일만은 아니다. 대통령과 연설문 작성자의 관계도 시인과 필사자의 구술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은 시인이고, 연설문 작성자는 시인의 말을 문자로 옮기는 필사자이다. 따라서 쓴다는 의식은 시인인 대통령에게만 가능하다. 연설문 작성자에게 쓴다는 의식이 성립될 수 없다. 제2의 기록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건 자네 글이지, 내 글이 아닐세. 다시 작성하게.”(윤태영, 2014a, 43). 대통령은 연설문 작성자가 써온 연설문 초안을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그 고유한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사하는 사람이 쓴다는 관념이 없이 필사에만 충실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평소에 하는 말을 모아서 부단히 읽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에게 글을 쓴다는 관념은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생각을 문자로 표기하는 문서작성이 있을 뿐이다. 쓴다는 관념이 존재하는 순간, 쓰기의 주체가 달라진다. 대통령 연설을 쓴다는 관념은 대통령 자신만이 가질 수 있다.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아카이브 작업장에서도 쓴다는 개념은 성립되기 힘들다. 아키비스트는 기술요소에 따라 기술하는 일에서 쓴다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기록기술서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넣을 수는 없다. 자신이 즐겨 쓰는 단어를 채택할 수 없다. 기록기술서와 검색어는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정보는 특정 아키비스트 개인에게서 나올 수 없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회적 약속인 표준적 기술요소에서 나온다. 아키비스트의 쓰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논점이 될 것이다.

쓰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념이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책을 읽듯이 내면에 있는 것을 읽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문자로 쓴다는 관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관념, 자신이 서술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쓴다는 관념 등이 그것인데, 이런 쓰기 관념은 서양의 역사에서는 12세기경에 등장했다. 영어 memory는 고대 그리스 전통인 므네모시네가 아니라 훨씬 후대의 라틴어 낱말인 메모리아(memoria)에서 유래했다(Illich & Sanders, 2016).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기억은 쓰기의 산물이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억과 쓰기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쓰기가 없으면 기억도 존재하기 힘들다.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서 쓰기는, 대통령을 쓰고 기억해서, 그 기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4) 쓰기와 읽기

관찰자에게는 쓰기가 필요했다. 쓰기는 애초부터 대통령과 약속이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곳을 향한 출발지는 쓰기였다. 대통령과 관찰자는 쓰기의 힘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서거할 때까지 글쓰기에 전념했다. 글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은 그야말로 치열했다. 그가 그렇게 믿었듯이 나 또한 글이 세상에 미치는 힘을 믿는다. 글은 기록이며, 설득이며, 노선이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표현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글을 쓸 필요가 있다.”(윤태영, 2014b, 12-13).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쓰기는 공동작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서거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 쓰기는 온전히 관찰자의 몫이 되었다. 실제로 쓰기는 진행되어 그 결과물로 몇 권의 책이 출판되어 나왔다. 그 중에서 특히 3권의 책이 주목된다. 그 책의 제목은 『기록』(2014년),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2014년), 『대통령의 말하기』(2016년)이다. 이 세 개의 텍스트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책에 담긴 내용은 이 글에서 분석대상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쓰기의 형식을 분석한다. 두 가지 논점을 잡을 수 있다. 첫째, 쓰기의 충동이다. 충동은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동이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들어 있다. 충동은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묵직한 것을 나르는 것인데, 그 묵직함으로 인해 걷는 모습이 곧은 일직선이 되기 어렵다. 이런 충동은 윤리적 충동의 줄임말이다. 관찰자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쓰기를 멈출 수 없었다. 쓰기의 충동, 그 윤리적 충동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그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싶은 소망’이었다.

둘째, 쓰기의 목적이다. 목적은 충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다. 쓰기의 목적은 이미지의 생산이다. 관찰자의 쓰기가 목적하는 바는, 시민들이 한 정치인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를 자신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에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를 문서로 기록하는 일과 대통령의 일상을 관찰과 쓰기로 기록하는 일은 다르다. 전자에서는 문서가 기록이다. 공공기관의 문서는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과정을 통해 RG(레코드 그룹)가 되고, RG를 기반으로 기록서비스가 시행된다. 아카이브가 생산기관에서 정당하게 기록을 이관 받은 사실,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RG를 만들었다는 사실, 이 RG를 기반으로 기록서비스를 전개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아카이브는 대통령이 수행한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후자에서는 글이 기록이다. 쓰기의 효과에는 글을 쓰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쓰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쓰기는 쓰는 사람 자신에게 자유를 준다. 기록하는 자신이 자유롭게 기록한다는 느낌은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글이 기록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경우, 기억과 이미지는 쓰기에서 나온다.

셋째, 쓰기의 관념이다. 쓰기의 관념은 목격자가 되어 목격자의 진술을 기록할 때부터 생긴다.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그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후에, 그에 적합한 문장을 쓰면서 형성된다. 쓴다는 의식과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때 비로소 지각하게 된다. 물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쓰기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쓰기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자신의 문장으로 쓰는 것’으로 국한된다.

넷째, 읽기와 쓰기의 관계이다. 쓰기는 읽기에서 나온다. 자신의 내면을 책을 읽듯이 읽거나 외부의 텍스트를 읽거나, 또는 이 둘을 내면과 텍스트를 동시에 읽거나, 읽기와 쓰기는 동시에 전개된다. 양자는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할 때는 구분할 수 없다. 마치 뼈와 살이 구분될 수는 있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 구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관찰자는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들(수첩과 파일)을 읽어 나갔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찬찬한 읽기는 어려웠다. 포기하기와 다시 읽기가 반복되었다. 차이는 반복에서 나온다고 했다. 지그재그 반복이어도 거기에는 마음을 다독이고 기록물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읽기와 정리>가 있었던 몇 년은 '이중적 정리'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쓰기가 나올 수 있었다.

관찰자에게 읽기는 문장(sentence)을 발견하는 작업이었다. 문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읽기와 쓰기는 문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다. 문장은 낱말(word)의 조직체이다. 문장의 질서는 그 낱말 중에서 주어와 술어의 역할을 하는 낱말의 문법적 배치이다. 문장의 의미는 낱말의 유효적절한 선택과 문법적 배치에서 나온다. 쓰기는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조합해서 의미의 최소단위인 낱말을 하나씩 써나가는 단순한 반복이다. 타일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타일을 하나씩 깔아 나가는 것과 같다. 쓰기를 하는 사람은 사각형 모양의 종이(화면)에 낱말을 하나씩 배치하는 무던함으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이 모인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만든다.

관찰하고 적어둔 후에 그것을 '진정한 기록'으로 재구성할 목적으로 하는 읽기는, 필요한 문장을 선별해서 쓰기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건축가의 설계도 읽기는 건설현장에서 건축물로 연결되고, 지휘자의 악보 읽기는 무대에서 공연으로 연결된다. 대통령을 관찰했던 과정과 결과를 읽고 정리하는 일은 쓰기로 연결되었다. 선별된 문장의 앞뒤로 배경설명을 위한 문장이 덧붙여졌다. 그런데 이것은 '창작'이기 보다는 목격자의 진술문에 가깝다. 관찰자는 이제 당시의 상황을 목격

했던 목격자가 되어 목격자의 진술문을 썼다. 목격자로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자신의 문장으로 쓴 것이다. <문장을 선별하기 + 선별된 문장에 목격자의 진술을 배치하기>가 반복되었다. 이런 쓰기의 반복으로 선별된 문장에 일정한 흐름이 생기고 의미를 담고 있는 맥락이 잡히며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만들어졌다. 과거의 문장이 현재의 문장을 만나 새로운 ‘기록 구성물’이 생겼다.

기록은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 기록한다는 것은 현실에 개입하는 것이다. 기록하면서 시각은 재구성된다. 시각이 재구성되면 현실은 새롭게 인식된다. 아카이브의 보존서고에 있는 기록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오래 전에 기록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나 아카이브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하는 현실을 재현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동반한다(Ketelaar, 2021). 인간과 기록의 관계는 상호 구성적이다. 특히 쓰기는 그 신체적 직접성으로 구성의 힘이 크다. 쓰기는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이상으로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부탁, 관찰, 읽기와 정리, 쓰기>라는 기록행위를 서술했다. 이런 기록행위는 아직은 공공기록관리의 절차와 관행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작용된다는 점, 대통령기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만 분석대상으로 삼았지만,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만 발생했던 우연한 사건은 아니다. 말의 기록화는 대통령기록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계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마다 통치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이 하는 말을 기록하는 일은 대통령기록관리에서 본질적이다. 대통령기록에서 말의 기록화가 갖는 중요성을 주시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민기록과 쓰기

1)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와 관찰

(1) 개요

2021년 여름에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한 아카이브 워크숍에 대해 서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기록관리에서 관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워크숍 이름은 '쓰'이었다. 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첫째, 물건/사물(things)의 측면에서 쓰이다. 이 말에는 <어떤 물건이 쓸모가 있다, 쓸만한 가치가 있다, 오래된 것들일수록 지구를 위해 재활용하여 쓰임새를 찾아야 한다, 지식은 실용적인 데가 있어야 한다> 등의 맥락이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은 쓸모가 있어야 한다.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그 단체의 재산, 활동의 증거이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교류하는 데에 필요한 역사이자 정보이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되지 않은 한, 재산과 증거와 연대는 부재하게 된다. 아카이브 워크숍은 보유 기록을 쓸모 있게 만들어 단체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단체가 추구했던 활동에 대해 말할 때 증거 기반의 설명이 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교류하는 것에 기록이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록관리의 기여도가 클수록 재산도 증거도 연대하는 것도 단체의 언어는 기록이 될 수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의 <쓰>이라는 이름에서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3장 1절에서 서술한다.

둘째, 인격(person)의 측면이다. 이 말에는 <맛이 쓰다, 쓰라린 인생이다, 뭉가 언짢다, 애를 쓰다(노력하다)> 등의 맥락이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에는 석연치 않았던 인생을 기록할 수 있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

석연치 않았으며 고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던 노력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카이브 워크숍에는 접혀져 있어야 한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인격은 사고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인생의 쓴 맛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록학을 하는 사람은 기록화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아키비스트는 기록과 인간의 상호구성의 길목에 자리를 잡고는, 그 기록적 상황에 참여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물건에 쓸모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인격은 생명에 속한다. 인격에 대한 것이라면 발견과 의미의 탐구가 요청된다. 인격은 수선해서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발견과 탐구는 그 사람의 개별성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류하려는 시도이다. 발견과 탐구의 방법은 다양할 텐데, 아카이브 워크숍이라면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서 시도할 수 있다. 3장 2절에서 서술한다.

참가대상은 지역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정리할 의사가 있는 단체였다. 5개 단체에서 10명 내외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아래와 같다.

〈표 1〉 아카이브 워크숍 참가단체

단체명	활동
기왓골 마을학교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결성했다. 전통 문화예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마을교과서, 전통건축 교구 및 모형 만들기, 여행 보드게임 개발, 동별 여행 가이드북 제작 등의 사업을 한다.
북울림	경쟁과 차별, 성과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아동 청소년, 학부모, 지역 구성원들과 당당한 공동체를 고민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광장을 만들어간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토론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다.

신길휴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단체이다. 이웃 간 분절된 관계로 인한 소통부재 및 갈등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관계개선 활동을 한다. 주민교육,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다. 현대 도시의 삶과 소외된 외곽지역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활동하고 있다.
울타리님어	초등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둔 주민들이 만든 모임. 우리동네 지역아동 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 아이, 네 아이 가리지 않고 마을에서 더불어 키워야 한다. 마을공동체, 놀이, 생태, 평등을 지향한다. 엄마여성모임, 아빠모임, 마을카페, 영차사회적협동조합어린이집과 네트워크, 주민자치회, 일동주민네트워크 등의 마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하다(HADA)	아동 취약계층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협동조합 활동을 한다. 다양성 인정, 자유롭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으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회복을 돕는 교육 공동체 건설이 목적이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출처: 각 단체에서 작성, 제출한 <기록조사서>와 <기록분류표> 요약.

워크숍에 참가한 단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좋은 삶을 실천하는 활동을 하는 곳으로, NPO나 NGO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속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의 곳곳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 활동을 수행한다. 그 중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좋은 삶을 실천하는 단체들도 많다. 이때의 기록관리는 마을아카이브라는 측면을 갖게 된다. 마을아카이브에는 공적 자원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의 의미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센터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워크숍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단체 활동의 증거인 기록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시도였다. 둘째, 한 사람의 활동가로서 살아온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은 다음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아카이브의 이해 → 논의(좋은 사례 학습 및 방향성) → 단체 기록물 정리(조사/분류/정리와 기술) → 활동가로 살아온 시간 정리(쓰기) → 마을발표회>. 앞의 세 단계까지는 아카이브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기록관

리 커리큘럼이다. 그러나 ‘쓰기’가 들어간 것은 낯선 시도이다. 여럿이 모여 앉아 쓰기만을 반복하여 각자의 텍스트를 완성하는 기록모임은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 워크숍이라는 틀에서, 기록관리와 병행해서 같이 진행되는 쓰기, 기록관리를 하지 않으면 쓰기도 할 수 없는, 기록관리가 쓰기가 공생하는 모습은 아직은 낯선 편이다. 마지막 마을발표회는 마을아카이브 실천에서도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공개발표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효과적이다.

워크숍은 6회차로 진행되었다. 커리큘럼을 표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 글에서는 ‘대화체의 이야기 형식’으로 말해본다.

① 여기 모여 앉은 우리는 상당히 낯선 존재인 아카이브를 만나고 있다. 낯선 존재일수록 낯설게 만나야 한다. 낯선 말을 익숙한 말로 포섭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낯선 말은 보석상자가 될 수 있다. 낯선 말에 대해 알고 노력하는 시도는 상자에 담을 보석을 수집하는 일이다. 낯선 상태를 유지하는 유용한 방법에는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고 아카이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우리는 어떤 점에서 아카이브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의외의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기쁨은 삶의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다. 삶은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저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② 5개 단체가 모였다. 각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그런데 함께 하는 작업이니만큼 의외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어떤 곳인지 서로 알고는 있었으나, 이번에 아카이브 워크숍을 하면서 기록이라

는 증거를 통해 본다면 좀 다를 것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쌓여있는 기록물은 아직 증거라 말할 수 없다. 어쩌면 정반대로 활동을 가로 막고 있는 성벽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대로 성 밖에 머물 수는 없다. 단체의 기록물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가. 정리한 후에는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도 질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기록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배울 수 있고, 몸에 체득할 수 있고, 단체 활동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록관리를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 쉬운 것이 올바른 것이다. 쉽게 익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③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기 위한 단체에 속해서 활동했다. 돌아보면 보람된 일이었지만, 그렇게만 말을 하기가 단순하지가 않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출세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를 감히 떠날 수는 없었다. 떠나지 않았던 우리가 여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애쓰며 살아온 시간은 무엇인가. 기억할만한 것들이 있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

워크숍이 종료된 후, 한 활동가는 워크숍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아카이브를 이해하고, 좋은 사례를 학습하는 워크숍을 했다. 공동체에는 의외로 누적된 기록물이 많았다. 시간에 비례해 기록물은 방대했다. 기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와 분류를 시도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하면서 컬렉션을 만들었다. 컬렉션을 만들 때는 하위의 시리즈를 구성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물을 없어졌음을 알고 속이 많이 상했다. 마침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단체) 역사책을 만드는 데에 아카이브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향후에 우리 단체에 새롭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흐름

과 정체성을 알 수 있게 아카이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아카이브 교육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지역과 마을활동가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깨닫는다.”(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61-63). 어느 곳이든 요약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화체의 이야기로 풀어쓴 워크숍의 특징과 즐거리는 이랬다. 질문이 있어, 이 질문을 따라갈 수 있어 워크숍은 여행인 듯 했다.

(2) 아카이브의 이해

요약이 필요해 한 참가자의 말을 인용했으나, 사실 참가자들의 아카이브 이해는 다양했다. 이런 다양성은 처음부터 기획되고 심지어 조장되었다. 어떻게든 아카이브를 하나의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기록활동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이 마을아카이브의 본령에 더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빠르게 정의되고 효율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낯선 존재로 머물러야 했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기록에 관한 것은 아니어야 했다.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이유, 삶의 방식, 그리고 아카이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시도를 위해 아카이브에 관한 새로운 은유가 필요했다. 새로운 은유는 그 은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있다.

ICA는 ‘아카이브는 과거를 보는 창(window)’이라는 은유를 채택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과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문일 수 있다. 창 너머에 있는 과거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존재한다. 창이 커질수록 과거는 더 크게 존재한다. 기록관리를 하는 상식적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여기에 낯설게 대하는 시도를 해본다. 그것 말고는 없는가. 창문의 프레임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을

까. 창문으로 보이는 것들은 어쩌면 포획되어 있고, 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창문은 교도소의 창문인가. 창문을 말하려면 그 창문을 가능하게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교도소의 창문은 감금을 보여준다. 다른 건물의 다른 창문은 또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투명하다는 사실이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따라 존재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게 된다. 창문에는 하나의 이견이 제출될 수 있다.

다른 이해도 가능하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과거는 과거에 속하지 않고 현재에 속하기에,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보인다. 기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과거는 그 용도에 맞게 구성된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독립된 의미가 새로운 실천을 낳는다. ‘있는 그대로’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동해가려면, 새로운 은유가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만들기의 일부이다. 마을 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 세력을 얻고 있는 사회적 흐름이다. 198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과는 다른 면이 있다. 마을 만들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누구나 시대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2000년대 이후라면 기록관리가 전개되는 동일한 역사적 시공간이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기록화의 대상이라면, 현재 전개되는 마을만들기운동은 기록화의 협력자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상(기록물)이자 협력자(단체, 활동가들)이다.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은 가난으로부터 부유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과거에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기록을 관리하고 사회에 제공하는 일은 창문의 은유로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마을 만들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마을아카이브에 적용할 은유로는 곤란하다. 마을기록도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는 최근의 실천적 인식도 있

다(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그러나 기록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다. 아직은 창문의 은유에 머물러 있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마을기록은 〈포획, 감금, 사육, 처리〉의 부정적 계열에 가깝다.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 울타리가 넓어지면 굳이 가축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풀어 놓아도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현재의 마을만들기운동은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좋은 마을에는 이웃이 있다. 이웃은 서로를 알고 돌볼 수 있는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이다. 좋은 관계에서 좋은 일(활동, 노동)이 나오고, 좋은 일에서 좋은 삶이 나온다(Schumacher, 2011). 기록관리의 협력자가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기록노동도 좋은 노동이 되어야 한다. 수량과 관계의 대비로 이 상황을 부연설명 해본다. 대량의 기록물을 처리하는 규모의 기록관리에는 좋은 노동이 나오기 힘들다. 유용한 정보가 대량으로 정리되고 제공될 수는 있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좋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에 관한 여러 정의가 제출되고 있다. 그 중에는 관계적 맥락에서 기록을 정의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이연창, 2022). 기록은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에서 나온 기록은 그 관계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 편지가 나오고, 편지는 두 사람의 사랑에 기여할 수 있다. 기록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관계가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관계를 강화한다. 관계는 기록이 생산되는 출처이자 기록이 돌아가는 회향의 장소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 간다. 아카이브 워크숍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려면, 그곳에는 좋은 기록노동이 있어야 한다. 좋은 노동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근거는 관계적 가치이다.

새로운 시도에는 새로운 은유가 필요하다. 이번 마을아카이브에는 ‘아카이브는 프리즘(prism)’이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

서 벽에 닿으면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빛은 무지개가 되어 나타난다. 아카이브는 프리즘이다. 아카이브는 자신을 통과하는 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분류하고 정리하고 기술한다. 보존서고에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기록상자들이 있다. 기록상자의 크기는 한 사람이 손에 잡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이다. 상자에는 인간의 기록행위인 기록관리가 들어 있다. 기록관리는 평가, 분류, 정리와 기술 등을 통해 기록물을 적당한 크기로 만드는 일이다. 아카이브를 프리즘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자, 단체의 기록물들이 적당한 크기의 상자 안에 속속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카이브 워크숍이 종료된다는 것은, 과거 활동의 결과물이 적당한 크기의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상자는 과거의 가치 있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크기로 다가갈 것이다.

이번 아카이브 워크숍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마을아카이브 실천에는 프리즘의 은유가 유용하다. 마을은 국가조직이 아니다. 일사불란한 기록관리가 마을에 적용될 경우 새마을운동과 비슷해질 것이다. 마을은 다양성을 요구한다. 물론 상호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프리즘 은유는 아카이브 실천의 다양성은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이런 주장은 마을에 대한 속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 아카이브가 단지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아카이브 워크숍이 우리 단체의 기록물을 정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아카이브 워크숍에 있었던 아카이브 활동은 재미이며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이다. 기록관리 방법론으로 정리된 아카이브는 이제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되었다. 이번에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인생은 버려짐이나 슬픔이 아니라 행복이었다.”(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62). 재미, 대화, 정체성, 행복은 우리 일상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치이다.

삶의 재미,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

구는 관계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계적 가치는 현재의 기록 관리에는 우연이다. 기록관리의 목적이자 효과로 삼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연이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제거가 되어야 한다. 관계적 가치는 대량의 기록물 처리에서는 대체로 제거된다. 그러나 마을에서 전개되는 아카이브 워크숍을 진지하게 참가한 사람은 우연에 주목하게 된다. 왜 마을인가. 왜 그런 마을에서 아카이브인가. 마을아카이브 실천에 긴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적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관계적 가치는 마을아카이브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래도 향후 마을아카이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인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래야 관계적 가치를 마을아카이브의 특수한 사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카이브의 본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아카이브가 추구할 가치에는 관계적 가치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 돌봄을 실천하는 활동가는 미래세대에게 주어야 할 관계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우리 세대는 정보습득이 빠르며 합리적 판단을 하는 세대이지만, 과도한 경쟁과 프레임 씌우기 등 정서적 결핍도 안고 산다. 다음 세대에 주어야 할 가치는 서로를 보듬는 삶이다.”(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100). 마을아카이브는 정보적 가치보다는 관계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마을은 관계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해는 실천의 일부이다. 아카이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아카이브를 실천하는 양상과 의미가 달라진다. 프리즘 은유는 아카이브를 마을로, 삶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시도이다.

(3) 관찰의 개입 : 〈정리, 관찰, 기술〉

대통령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 관찰이 필요했으며, 이런 상황을 ‘기록 관리에 접혀진 관찰’로 살펴보았다. 앞서 접힘과 펼쳐짐을 신문의 비유

로 말한 바 있다. 신문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한 만큼 펼쳐야 한다. 마을아카이브에서 펼쳐지는 관찰은 그 나름의 펼쳐진 모습이 있다. 관찰이 개입하면 마을아카이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와 기술>이라는 익숙한 조합 대신 <정리, 관찰, 기술>이라는 낯선 조합으로 말할 수 있다.

관찰은 사물, 인간,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기록을 관찰하는 것은 읽기이다. 기록물을 정리는 사람이 기록물을 읽는 행위가 관찰이다. 대규모의 기록물을 처리해야 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기록물을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때는 읽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는 은유이다.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기계적 작업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을아카이브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마을아카이브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읽기로서 관찰은 쓰기의 욕구를 초래한다. 문자사회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새의 양 날개처럼 동시에 발생한다(Illich & Sanders, 2016). 읽기와 쓰기의 새로운 전개는, 기술(description)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다. 이때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술은 세포분열처럼 두 개로 분화되면서 변용이 된다. 하나는 기록기술(archival description)로 자신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 기술서(narrative description)가 된다. 아카이브에서 기술하는 일이 확대될 수 있다.

센터에서 제시한 아카이브 워크숍의 목표는 분명했다. 사업을 주관한 담당자는 이미 4.16기억저장소의 마을아카이브 교육을 받았다. 아카이브 교육을 받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아카이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할 아카이빙 업무를 기획하면서 한 사례를 모델로 잡았다. 화가가 모델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센터도 좋은 기록모델을 필요로 했다. 기록모델을 관찰하면서 지역에 맞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는 구상을 가다듬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요약할 수 있겠다. <마을아카이브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동물권행동 카라아카이브’를 모델로 삼는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상상하며, 지역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마을아카이브 교육을 꾸준히 전개한다. 단체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아카이브 워크숍을 주최한 센터의 기획 의도는 이와 같았다(2021년 6월~8월의 사업기간 중 담당 팀장과 나는 대화를 토대로 정리함). 아카이브 워크숍은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테스트 베드의 실험적 성격일 수도 있겠다.

아카이브 워크숍의 단체 기록물 정리는 ‘기록물 현황 조사, 분류, 그리고 정리와 기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몇 개 사례를 모델로 잡았다. 4.16 기억저장소(안산), 느티나무도서관(용인), 풀무학교(홍성), 꿈이차라는뜰(홍성), 스토니브룩 대학(미국 뉴욕)의 사례가 검토되었다. 이를 토대로, 각 단체마다 조사서, 분류표, 기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수정하고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다. 필요했던 경험이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미완이었다. 첫째, 보존과 서비스에 대한 것인데 시도하지 못했다. 이것은 지역의 소규모 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는 사회의 공적 지원이 들어와야 한다. 둘째, 성과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록물정리사업처럼 가시적인 결과물은 없었다. 그러나 변명은 있다. 그것은 모두 ‘코로나 때문’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력의 부족을 감춰주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막연함이 있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 단체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모여 앉아 아카이브 워크숍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진지하게 나왔다. 이때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해야 하는 것은 ‘실패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의외의 기록 상황’이다. 산을 오를 때 보지 못한 꽃이 있다면,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읽기와 정리〉의 발견이다. 2장 2절에서 읽기

와 정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때의 기록읽기는 관찰하고 기록했던 대통령을 읽는 것이었고, 기록정리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시민기록에서 기록읽기는 활동하며 만난 마을을 읽는 것이고, 기록정리는 삶의 이미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마을 일’을 하는 단체에서 일했다. 단체에 관한 사항과 기록물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했다(분류, 정리와 기술). 그래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기록과 앞으로 더 조사하고 수집해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초창기부터 현재의 마을을 위해 애써온 이들의 기록을 찾아내고, 운 좋게 그들의 이야기를 담기를 바란다.”(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22). 각오도 다질 수 있었다. 기록읽기는 기록의 행간에 들어 있는 마을을 찾아내 읽는 시간이었다. “방과후 활동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마을의 다양한 단체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21-22) 읽을 수 있었다. 기록읽기는 마을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기록을 읽고 정리할수록 그동안 활동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괜찮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다.

마을아카이브의 기록읽기는 마을을 읽는 것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에서 기록을 읽고 정리하면서 발견한 마을이 그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활동가들은 마음 깊은 곳에 마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된 기록물을 읽고 정리하는 일은 그런 이미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었다. 좋은 삶을 실천하는 데에 복무하는 활동가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마을이 기록에 접혀져 있다가 새롭게 펼쳐진다.

마을은 서로를 믿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확실히 술한 갈등과 회의감이 상존하는 지겹도록 힘겨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느낀 타인과의 연결, 협력을 통한 일의 성취와 보람이 힘들고 외롭고 지루한 날들을 버

될 수 있는 힘이다. 함께 하는 삶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든든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은 서로에게 비밀 언덕이다. 나무가 숲을 필요로 하듯이 사람은 마을을 필요로 한다. 마을 일을 할수록 마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다. 활동을 하는 시간은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다. 만남은 마을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느 순간 마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된다. 마을은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 수 있다. 모임은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을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이 있어 마을 편히 일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일상의 앞뒤에 새로운 말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라는 말의 앞에는 공동, 뒤에는 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여럿이 함께 하는 공동육아가 가능해진다. 공동육아는 마을을 만드는 활동이다(돌봄). 주민들의 냉담한 시선과 자주 들리는 쓴 소리는 융통성 없이 살아온 자기 모습을 대면하게 한다. 일이라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타인을 위한 활동에는 기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의 삶은 평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입체적으로 사는 것이다. 입체적인 삶이 들어 있는 마을활동은 규모가 작고 복잡다단하지만, 안과 밖이 일치되는 짝 찬 느낌을 준다. 마을은 어떤 곳인가? 이웃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생활이 있는 곳이 마을이다(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좋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참여하여 전개되는 아카이브 워크숍은 이런 연대와 협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록전문가와 협력할 필요가 나온다. 상호 협력하면서 좋은 기록노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이 개입하면 <정리와 기술>의 익숙한 조합에 균열이 생긴다. ‘정

리, 관찰, 기술로 전개된다. 이때 관찰을 잘 접어두면 〈정리와 기술〉은 관찰을 접은 채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그곳의 맞게 적용될 수 있다. 각자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야기 기술서는 활동가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에 유용하다. 후자가 있어 기술하는 일, 기록하는 일은 좋은 노동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서술한다.

2) 활동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

(1) 안부

단체의 기록물 정리가 끝난 후, 쓰기가 이어졌다. 쓰기에 대해 말해 본다. 안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안부를 나누는 일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그 사람이 처한 사정을 살펴보는 일이다. 안부는 만남과 헤어짐에 있으니, 안부는 일상에서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생활의례이다. 우리는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안부를 나누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 안부가 전문영역인 기록의 시간에도 자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숙고해본다. 숙고의 결과는 그래야 한다이다. 기록도 사람의 일이어서 기록하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 단순한 명제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기록으로 초대하는 일이 요청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전개되는 아카이브 워크숍은 좋은 삶을 위한 목표를 공유해야 하고,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 기록노동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워크숍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정을 헤아려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체의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안부는 필요했지만, 안부는 특히 쓰기에서 더 긴요하게 필요했었다.

아카이브 워크숍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여름날에 있었다(2021년 6월~8월). 기록관리 자체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다. 기록함은 인간이 살

아가는 데에 필요한 평범한 일들 중 하나이다. 아카이브 워크숍도 그 자체로는 평범한 모임일 수 있으나,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비범한 면도 지니고 있었다. 1만 3천여 명의 죽고 100만여 명이 난민이 되었던 코소보 내란 때 도시는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폭격에 무너진 도서관 건물에서 책을 몇 권 가져와서 숨죽여 읽으며 폭력을 견디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후쿠시마 일원에 전기가 모두 끊겨 도시는 암흑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컬 라디오에 의지해 서로를 찾아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며 대처했다고 한다. 책과 라디오는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평안을 주고 안부를 나눌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범한 매체가 될 수 있었다.

코로나에 갇힌 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있었다. 대면모임으로 열린 아카이브 워크숍에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다. 안녕한지, 별 일은 없는지, 위로 한 조각 나누는 용기가 안부에 들어 있었다. 안부를 나누는 순간이면 잠시나마 내적 평화가 찾아온다. 마스크로 서로의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눈빛은 교환할 수 있었다. 헤어질 때는 잘 지내라는 안부를 건넸다. 안부는 매일의 실천이다. 어제 안부를 나눴어도 오늘 만나면 밤새 무슨 일은 없었는지 안부를 나누게 된다.

5.18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엽서’ 프로젝트가 있다. 안부는 사적인 일이다. 일상의 사적인 안부에, 과연 공적 예산이 들어가고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의미를 추구하는 공적 프로젝트로까지 발전시켜야 할까 하는 물음이 생긴다. 이 물음에 대해, 기획자는 자신의 삶에 뿌리박은 것들이 발단이었다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삶에 뿌리박은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엽서에 대한 깊은 애착, 이국을 여행하다 기억문화기관에서 엽서를 구입해 친구들과 안부를 나눌 때의 순연한 기쁨, 후원자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때의 감사함, 엽서라는 작은

기록공간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할 때마다 발동하는 상상력.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사회적 이유로만 전개될 이유가 없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에서 기록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안부 프로젝트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5.18행사위원회,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협의해서 ‘장소가 가진 시간성을 목격자가 되어 기록한다’는 줄거리를 잡았다. 5.18 기록(그림, 글)이 들어간 엽서를 1만장 만들어 지역 곳곳에 두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도 엽서가 비치되었다. 기록은 보존서고에만 있지 않고 민들레 흩씨처럼 일상의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누구라도 일상의 곳곳에서 엽서를 발견하면, 그들은 그것을 손에 잡고서 누구에게 보낼지, 엽서 한 장의 그 비좁은 기록공간에 무엇을 쓸지를, ‘기억의 목격자’로서 고민했다. 그리고는 안부를 전하는 일을 기록하는 일로 전환시켰다. 기록한다는 것은 안부(위로, 위안)를 전하는 일이 되었다. 공동체는 관념이 아니다. 공동체는 잘 지내는지 진심으로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데에 있다. 안부를 나누는 일에 사회의 공적 자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데에 있다(오월, 광주에서 보내는 안부’ 프로젝트, 광주드림. 2018.5.9.).

필자는 광주의 한 아카이브 모임에서 만난 기록자에게 엽서 몇 장을 선물로 받았다. 이 글의 한 출처는 광주에서 안부 프로젝트를 만난 행운이다. 여러 곳에서 안부와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충남 홍성의 한 시골에서 농사와 기록을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한 농부도, 농장기록(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 안부를 나눈다. 4.16 기억저장소 기억교실에도 안부가 있다. 교실의 한 책상에 앉아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먼저 간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다. 남아 있는 자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기록으로 약속한다. 기억교실은 전시의 일환으로 일종의 ‘상설전시’이다. 4.16기억저장소라는 아카이브에서는 전시와 안부가 불가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카이브에서 안부를 묻는 쓰기는 망각과 기억의 교차이자 상호작용이다. 망각이란 일상과 자신을 잠시 잊어버림이다. 기억이란 엽서를 받을 사람을 떠올리고 궁금해 하는 것이다. 진실은 망각에 있지 않고 기억함에 있다. 기억은 기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행위에 접혀져 있다. 2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억하려는 사람은 시인이다. 시인은 자신이 기록한 기억을 사람들과 나누려는 기록매개자이다. 공동체에는 이런 기록매개자가 필요하다. 공동체는 추상이 아니다. 행정구역상의 주소지도 아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공동체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은 관계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의 권위는 참여에 있다.

워크숍이 열렸던 곳은 카페이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공간이었다. 입구에는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음료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좌우로 있었다. 이런 공간구성을 은유를 넣어 말해보자면, '카페의 몸을 가진 공적 공간'이 될 것이다. 규모의 기록관리는 카페 스타일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기가 힘들다. 규모의 기록관리에 어울리는 곳은 컨베이어 벨트를 몸으로 가진 공간이다. 반면, 작은 기록관리는 '카페라는 몸'을 요구한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는 의자가 없다. 그러나 카페 스타일의 공간에는 대형탁자와 의자가 있다. 소파가 안락함을 상징하는 가구라면, 둥근 탁자와 의자는 대화를 상징한다.

아카이브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기록의 세계에 입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입장한 기록의 세계에는 탁자가 있어 각자 탁자의 어딘가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것이다. 거기에 모여 앉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다. 같은 지역에서 각자의 단체에서 활동가로 살아왔기에 서로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다. 어떤 행사에서는 같이 있었고, 간간이 대화도 나눴고, 품문으로 전해오는

소문도 있었다. 아카이브 워크숍이 아니어도 그들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이웃이지만, 이번에는 안부가 비범했고 기록함의 일부였다. 재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카이브 워크숍 때문이었다.

안부를 나누는 일에서 기록하는 일이 시작된다. 마지막 날이 되자 단체의 기록물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는 맨몸이었다. 각자의 육체에 기억으로 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카이브 워크숍에 나타날 차례가 되었다. 맨몸을 드러내는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다정하게 안부를 나누다보면 두려움이 경감된다. 두려움이 경감되는 흐름을 타고 더 써야 한다. 평안하게 살고 싶으나 사는 게 꼭 그렇지는 않다.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다. 인간은 '완벽하게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갈등이 있는 줄 알면서도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 서로 간에 안부를 나누는 것은 평안한 삶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이다. 사람들은 안부를 나누면서 서로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며 평안한 삶에 지지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공동체는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에서 기록함은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지역에서 마을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 안부를 나누며 살았던 활동가들이, 아카이브 워크숍에 자리를 잡고서는 서로 간에 안부를 나누며 썼다.

(2) 다술적 쓰기와 텍스트의 구성

인간의 기록행위에는 쓰기, 그리기(사진 포함), 읽기(보기 포함), 듣기 등이 있다. 다술적 쓰기는 복수의 기록행위를 함께 적용하되, 이를 의식하면서 상호작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쓰기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쓰기의 과정과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 필요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체의 기

기록물 정리를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모여 앉아 의논하며 하였다면, 살아온 시간을 쓰는 일도 같은 기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술적 쓰기는 이런 데에 어울린다. 이번 아카이브 워크숍은 다술적 쓰기를 시도했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텍스트가 된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써야 하나의 텍스트가 생긴다. 단체의 기록물을 정리한 후, 활동가들은 쓰기를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텍스트에 질서정연하게 담았다. 그들은 A4 5쪽 분량의 텍스트를 들고 모여 앉았다. 쓰려고만 했다면 100쪽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이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크기가 필요했다.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면서도 그것을 천천히 읽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적당한 크기이다. 이런 쓰기의 시간에는 탐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발견, 탐구, 대화의 기쁨이 있다.

오리지널 텍스트는 각자 집에서 썼다.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쓰기'였다. 누구도 대신 쓸 수 없었다. 대통령처럼 연설문 작성자를 따로 둘 순 없었다. 자기 앞에 날아다니는 파리는 자기가 쫓아야 했다. 그들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 맨몸으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스스로 썼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다. 참가자는 9명이었다. 9개의 텍스트가 발생했다. 주최하는 센터에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간결하게 제본했다. 사람들은 각자 책자를 손에 들고 워크숍에 입장했다.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났다. 동굴에 들어갔던 곰이 웅녀가 되어 나타났다. 존재의 재발견은 기록하는 시간에 발생하게 되는 의외의 사건이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현재 진행형으로 서술한다.

① (낭독자) 텍스트 작성자는 자기가 써온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는다(낭독한다). 낭독할 때 주의사항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약속이다. 시간의 제약도 있지만, 문장의 독해를 온전히

청중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이 써온 문장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낭독의 순간에는 낭독에 몰두한다. 이로써 현재에 만족할 수 있다. 낭독자는 호흡할 수 있는 길이만큼 끊어가며 읽는다. 단숨에 읽는 문장도 있고, 두세 번 끊어 읽는 문장도 있다. 단문과 장문이 조화를 이룬 텍스트에는 이런 묘미가 있다.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진다. 쓸 때는 생기지 않았던 감정이,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하자 마치 문장 안에 숨겨져 있다가 출현하는 것 같다.

묵독과 낭독은 상당히 다르다. 낭독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그 문장을 썼는지, 그 문장의 의미를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사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점에서, 텍스트에는 이해하지 못할 문장은 없다. 그러나 청중이 있는 곳에서 낭독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이 왜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굳이 써야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그 사람의 삶의 조각들이 들어 있다.

한편, 낭독자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청중이 되어 자신이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이 써온 문장은 세상에 처음 출현한 문장이다. 스스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자기 목소리로 듣는 것이다. 읽기는 듣기의 일부이다.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는 듣기가 있어야 읽기도 있다. 따라서 낭독이라는 읽기는 듣기의 세계로 입장하는 방법이다. 듣기는 읽기와 다른 감각을 일깨워준다. 낭독자는 접혀져 있던 쓰기의 세계를 다술적 읽기(쓰기-낭독-듣기)로 펼친다. “자, 여기에 와서 앉아.”

② (청중) 실내는 조용하다. 오직 낭독자의 낭랑한 목소리만 들린다. 낭독자의 호흡과 성량과 음색이 형성하는 질서가 생긴다. 청중은 그 질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청중은 침묵한 채 낭독자를 따라 간다. 낭독자의 읽는 속도에 맞춰 눈으로는 읽고(묵독), 귀로는 문장의 음성화

를 듣는다. 낭독자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 청중도 그 시간만큼 숨을 쉬어야 하고, 낭독자가 격앙된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면, 청중도 같이 흔들려야 한다. 청중은 쓰면서 듣는다. 마치 몸을 흔들며 음악을 듣는 것 같다. 펜으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기를 따라간다. 오리지널 텍스트에 새로운 기호(단어, 문장, 밑줄, 문장기호, 밑줄 등)가 덧붙여진다.

이것들은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본래 없었으나, 워크숍 현장에서 청중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텍스트에 기생하는 것들이라 하겠다. 오리지널 텍스트와 파라텍스트(paratext_para에는 기생한다는 뜻이 있다)가 공생하는 새로운 텍스트가 생긴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낭독하고 듣는 상황에서 파라텍스트가 만들어지지 않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청중은 눈을 고정시킨 채 문장을 묵독하고, 그 문장을 낭독하는 낭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손으로는 파라텍스트를 만든다. 여러 기록행위가 입체적으로 발생해서 복잡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떤 하나의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는 어떤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낭독이 멈추는 순간, 이런 의문에 답해야 한다. 청중이 되는 것은 숙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청중에게는 다술적 듣기(묵독, 듣기, 파라텍스트 만들기)가 있다.

③ (증언자) 낭독이 끝나면, 순서는 역전된다. 이제는 청중이 말하고 낭독자는 듣는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들었는지 말한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토론자는 아니다. 학술모임에서 토론자는 일정한 권위를 가진다. 권위가 없으면 토론이 어렵다. 그러나 여기는 다르다. 청중을 대표하는 권위는 없다. 이런 모임에서는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다. 권위의 목소리를 가진 토론자보다는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증언해줄 사람이 멤버가 되어야 한다. 권위의 멤버십보다는 인정과 지지의 멤버십이 요구된다. 이제 청중 내부에 접혀져 있던 증언자

그룹이 나온다. 세상에 나온 증언자는 진지해진다.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찬찬히 들었다는 것에 대해, 그림자가 있고 실패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온 괜찮은 삶이었다고, 인정해주고 지지를 보내준다.

증언은 법정에만 있지 않다. 역사를 위한 장중한 증언도 필요하지만, 일상적 삶에서 요구되는 증언은 듣기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다. 증언은 각자 어떻게 들었는지 진솔하게 말하는 일이다. 이때 낭독자는 침묵해야 한다.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거나 부연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할 수는 있으나, 증언자 그룹의 말을 묵묵히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낭독자에게는 있다. 쓰기는 증언을 듣는 단계에서 절정에 이른다. 증언자는 자신이 본 것만을 증언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 밖에서 증언할 수 없다. 텍스트를 해석하고 증언하는 관점은 텍스트 작성자(낭독자)의 관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증언은 파라텍스트를 기초로 전개된다. 밑줄 친 부분, 메모해두었던 것,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기호가 있는 부분에서 증언이 나온다. 물론 이 증언에는 듣기를 통해 받아들인 그 사람 삶의 이미지가 바탕에 깔린다. 듣기는 증언자가 되는 시간이다. 찬찬히 듣는 시간은 누군가의 삶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에서 쓰기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은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증언자를 생산한다.

④ (관찰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제 엔딩이다. 엔딩의 장면은 낭독자가 최종적으로 소감을 이야기 하는 장면이다. 쓰고 낭독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것들에 대해 말할 수도 있고, 증언의 말을 찬찬히 들으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낭독자에 머물 수 없다. 이제는 관찰자가 되어 정리할 때이다. 쓰면서, 낭독하면서, 증언을 청해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대면하는 관찰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찬찬한 관찰자가 되어 '조용한 이동'에 대해 말한다.

이때쯤, 관찰자는 집에서 텍스트를 작성할 때와는 상당히 다른 곳에 자신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며 쓸 때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카이브 워크숍에서 추구할 수 있는 효과는 다른 데에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은 관찰자를 생산한다. 청중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낭독하고, 증언자의 말을 듣는 대화의 순간에 관찰자가 출현해 필요한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도 의외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었다는 자각, ‘사방이 막혀 어둠에 쌓여 있을 때는 더 나아가기를 바라던 순간’이었다는 이해, 마을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 자신의 발바닥이 찍혀 있다는 인식, 그곳에서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공동체 감수성’을 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에게는 윤리적 충동이 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게 되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며,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다.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볼 수 있는 쓰기는, 윤리적 충동이 추동한다. 엔딩의 순간, 관찰자는 윤리적 충동에 따랐던 좋은 삶의 이미지를 정리해서 말한다.

쓰기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카이브 워크숍에 여럿이 모여 앉아, 일련의 기록행위(쓰기, 읽기, 듣고, 말하기)를 동시에 수행하며 썼다. 그 시간은 관찰자로서 삶의 이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쓰기에서 나온 텍스트는 수정, 편집되어 “안산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텍스트는 기록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이 되기 전에, 기록하는 시간이 머물렀던 기록공간이었다. 공간이 있어 운신의 여지가 있었으며 이동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아카이브 워크숍에서 전개된 시민기록과 쓰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서, 단체의 활동가

들과 회원들이 함께 모여 앉아, 탁자에 기록과 보존도구를 올려놓고는 손으로 만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록을 정리하는 장면. 기록물 현황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정리와 기술을 하고, 보존방법을 모색하고, 기록서비스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고민하는 장면. 기록물과 신체의 물리적 접촉(손으로 만지고 가만히 바라보고 냄새 맡고 하는 행위)을 하면서 기록의 의미를 탐구하는 장면. 그리고 단체의 기록물을 다 치운 후에 활동가로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텍스트를 써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기록물정리사업이나 기록관리 컨설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와 별개로 다른 실천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인 활동이 있는 곳이라면, 사회의 공적 지원과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작은 아카이브 워크숍이 그곳에서 찬찬히 전개되어야 한다. 쓰기는 여기에서 출현할 수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기록학의 탐구대상이다.

4. 쓰기, 몇 가지 단상

1) 기록관리와 쓰기의 공생

어딘가에서는 시작해야 한다. 달력이 없고 지도가 없는 곳에도 기록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비록 있더라도 기록학이 그것을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다. 누구의 어떤 기록인지 말할 수 없는 출처불명의 기록물에게 아카이브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공공아카이브의 심장부인 보존서고에는 세부정보로 관리되는 기록물만이 자격을 갖춘 채 고요히 머물러 있다. 우리는 기록의 역사에서 달력과 지도로 세부를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해야 한다. 쓰기에 대한 논의를 기록관리가 전개되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기록학

의 본령 때문이다.

문학에서 쓰기와 기록학의 쓰기는 다를 것이다. 교육, 의료, 저널리즘 등 전문분야의 쓰기도 기록학의 쓰기와 다를 것이다. 기록학은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담론이다. 그렇다면, 기록학은 분야별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쓰기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탐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기록학에서 쓰기를 시도한다면, 어디에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정책적 접근을 먼저 해본다. 쓰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물음은 뒤에 둔다. 여기서는 기록물이 있는 곳에서 기록관리를 하면서, 이런 기록관리와 함께 하는 쓰기도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록학이 기록관리, 정보공개, 구술처럼 쓰기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본다. 질문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쓰기는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보다는, 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이며,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질문으로 쓰기의 기록학적 논의를 출발시켜 본다. 지도와 달력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고 쓰기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면, 기록학이 실천할 수 있는 쓰기의 '생산적 맥락'을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록학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출발했다. 이 상황을 줄여서 기록관리라고 한다면, 기록관리는 기록학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기록학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실천이 현재의 기록관리의 틀에서만 전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기록의 사회적 욕구와 저변이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해체, 창조, 전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기록학적 논의라면, 기록관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연결해보려는 노력, 그래서 기록관리를 심화하거나 확장해서 기록학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 쓰기를 검토해보려는 이 글의 시도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 말할 때는 두 측면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카이브에 중요한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기록관리의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다. 워크숍은 시민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 좋은 기록모임을 확산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카이브 워크숍을 열고 함께 기록관리를 고민하는 일을 하면서, 쓰기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12월 현재,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파악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5,051개에 달한다(e-나라시표).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약 3만 개에 이른다.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구분된다. 이런 곳들은 우리 사회의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사회의 중요한 공적 자산이다. 기록관리는 사회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마을아카이브 실천에서 구술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술이 없었다면 마을아카이브가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전개양상을 보면, 기록관리와 구술이 함께 전개되는 아카이브 워크숍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쓰기의 사회적 욕구도 구술만큼 크다. 쓰기는 특히 직업, 연령, 성별 등에 구애 받음 없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카이브가 사회적 실천으로서 쓰기를 고민한다면, 여럿이 함께 모인 곳에서 하는 쓰기에 대한 것을 숙고해야 한다. 기록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기록관리와 쓰기가 공생하는 아카이빙을 모색해야 한다.

쓰기는 단순히 정보적 욕구만을 충족하지 않는다. 쓰기는 미학적 욕

구를 충족하고, 도덕적 욕구를 충족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을 때 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쓰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을 때 쓴다. 연민의 자리에 쓰기가 어울리고, 환대와 우애의 자리에 쓰기가 어울린다. 기록관리는 그 자체로 관계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쓰기, 그리고 구술과 공생하는 기록상황에서는 관계적 가치를 발견하고 탐구하면서 인간적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

2) 관찰의 실천적 함의

(1) 관찰과 평가의 구분

2장과 3장에서 관찰에 대해 서술했다. 공공기록관리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서 나오는 기록을 관리하는 기초가 있어서 인간에 대한 탐구가 끼어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찰이 기록관리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공공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통령기록관리의 경우,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특이한 계열로 들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시민사회 단체의 기록관리에서는 관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단체의 기록물만 관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도 있다. 관찰을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예전에는 아이를 생산한다는 말을 썼다. 현재 70~80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쓰지만, 아이를 생산한다는 말도 사용했다. 생산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앞으로(pro)－이끌다(ducere)’는 뜻을 적용할 수 있다. 기록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능동성을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낳은 것들(타인, 그들이 하는 말, 그들과의 관계)도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에리히 프롬 2006). 한 인간의 내적인 것들이거나 사회적인 것들이나 기록은 그

것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상호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록에는 이런 생산성이 있다. 여기에서 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야를 확대하면 관찰에서 새로운 기록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관찰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록관리의 인식과 실천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찰과 이어지는 일련의 기록행동은 기록관리의 단단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 관찰을 기록관리의 독립적 의미로 삼고 그 의미의 실천으로서 기록행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발점은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기록관리에서 본령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공공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업무평가도 기록관리 중요 업무이다. 그러나 기록관리는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기록관리는 객관적인 행위로 이해된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판단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평가를 기록관리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작성된 문서를 수집하는 일은 가능해도, 어떤 인물에 대한 특정한 평가를 하는 것을 기록관리 업무로 삼기 힘들다. 따라서 기록관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평가와 관찰을 동일하게 인식하면 관찰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기록관리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와 관찰을 구분하게 되면, 평가라고 막연하게 이해되는 것들로부터 관찰을 구분해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찰은 기록관리상에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기록관리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찰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관찰은 ‘행동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는 서술이 가능하다.

반면, 평가는 ‘의견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 행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Rosenberg, 2017). 대통령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행동이 어떠하다, 어떤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와 관찰을 구분하면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언행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록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기록관리가 설명책임성을 다해야 한다면, 관찰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관찰은 ‘권력으로서 말의 기록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일상의 기록관리에서도 평가와 관찰의 구분은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든다. 관계를 기록하는 일에서, 대학생 아들이 엄마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 경우 평가와 관찰을 구분해야 기록화가 가능하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40~50대의 한 여성’이 된다.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엄마라는 언어적 규정에 속해서 볼 수 없었던 어떤 한 여성이, 엄마가 아닌 곳에서도 찬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간에 엄마라는 규정(평가)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 엄마를 엄마라고 말하는 동어반복보다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순간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기록함의 순간마다 질문하고 관찰하는 일이 요구된다. 나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엄마를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는 무관한) 어떤 여성>으로 해방시켜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엄마를 새롭게 이해하는 순간이다. 이런 룩의 순간은 엄마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한다.

‘기록한다는 의식적 관념’이 없어도 아들은 엄마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엄마와 다정다감한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행위로서 기록관리는, 이런 사회적 관계에 관여하기 힘

들다. 그러나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나의 기록관리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수행한다면, 이런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도 기록관리는 관여할 수 있으며, 그 관여를 통해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의 필요 시,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필요나, 방역의 필요나, 범죄행위를 단죄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그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게 된다. 기록학이 추구하는 기록관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 필요한 공적인 활동이다. 기록화의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에 관여할 수 있다’. 또는 이 지점을 ‘사람을 기록하는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는 단초로 삼을 수도 있다.

(2) 관계의 기술로서 관찰

관찰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그리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길고양이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그 피사체인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다. 반면, 길고양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한 두 시간동안 자세히 지켜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고양이의 모습은 관찰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오히려 그 본래 모습에 더 가깝게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면서 스케치하는 것,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정확성과 별개의 새로운 양상을 전개시킨다. 단순히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라, 고양이가 한 마리의 고양이로서 살아가는 상태, 또는 길고양이의 생태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기록자를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한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기록상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고 상대의 상황에 관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관찰에는 “서로가 이어진 방식을 살펴보고(관계), 그 관계를 바탕으로 변화를 만

들어내기(관여)”(최문철, 2019, 80)로 연결되는 힘이 있다.

기록교육은 아카이브가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기록서비스이다. 10~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교육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적용할 수 있다. 필자는 한 대학에서 ‘일상생활과 기록’이라는 과목명으로 기록교육을 하고 있다. 이 기록시간에는 가족, 연인, 친구, 특정한 인구집단(예. 40~50대 남성들, 20대 여성들), 또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관찰되고 기록된다. 여기서 기록의 효과는 자신과 자신이 일부가 되어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일평생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사진이나 그림을 그린 적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국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국민으로 간주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거리에서도 그 사람은 일상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일상적인 상품구매를 위해서도 기록이 되어야 한다. 기록이 없는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록하는 시간보다는 기록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랑의 목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진지해진다. 관찰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기록의 영역에서 관찰이 갖는 독립적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기록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야기 기술서

기록물에 대한 기록기술서가 필요하다면, 삶에는 이야기 기술서(Narrative

Description)가 필요하다. 후자는 특히 쓰기의 영역에서 주된 서술대상이다. 이야기 기술서는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물론 시 형식(강금연 외 88명, 2015. 강봉수 외 118명, 2016), 소설 형식도 가능하다. 영상 기술서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들이 모두 이야기라는 점이다. 기록학과 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이야기 기술서의 성격과 특징을 짚어본다.

이야기 기술서의 성격은 이야기이다. 영화, 소설, 웹툰 등의 사회적 형식에서 이야기가 가능하듯이, 이야기 기술서도 이야기를 출현시키는 사회적 형식이 될 수 있다. 아카이브 워크숍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술서를 썼다. <정리와 기술>의 패턴으로 말해본다면, '경험의 정리와 기술'을 하였다. 한 인간이 살아온 경험은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하고 기술할 때 가장 호소력이 있다. 그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쓰면서 그 사람의 경험은 정리된다. 그 사람의 고유한 체험이긴 하지만, 이야기 기술서로 정리된 경험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야기 기술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기록산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쓰기의 장소가 아카이브 워크숍이었다는 점, 텍스트 성격을 기록으로 이해했다는 점(단체의 기록물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활동가의 경험도 함께 정리해야 할 기록임을 의식하며 썼다), 쓰기의 주체를 기록자로 이해했다는 점(자신이 기록하는 존재인 기록자라는 관념을 갖고 썼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하나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에세이의 프랑스어는 에세(essai)이다. 이 말에는 시도한다는 뜻도 있다.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대중적인 이야기인 영화에서 주인공은 '무언가를 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애를 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에 휘말려든다. 주인공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만 잘 되지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좌절을 겪는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시도하기에 이야기는 전개된다.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런 주인공과 일체감을 느끼며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를 응원하게 된다. 에세이를 썼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삶을 실천한다는 줄거리로 요약할 수 있지만, 간단치 않았던 시간이었다. 에세이의 주인공들은 끝나지 않을 지도 모를 이야기 속에서 계속된 시도를 반복했다. 에세이를 쓴다는 것도 그렇게 지속된 시도 중의 하나였다.

셋째, 실패의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질을 밟고 지나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에세이에는 본질을 밟고 앞으로 걸어간 시간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삶의 본질을 ‘인간관계’로 보고 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관계를 대충 지나치지 않았다. 정직하게 발바닥을 찍으며 그곳에 있었다.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대면했다. 그것은 좋은 삶을 가꾸기 위한 시도의 반복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에는 편견이 있다.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위를 올려다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문제로 삼을 수 있는 편견은 여기에 ‘성공, 성장의 사회적 평가’가 가세한다는 점이다. 단체의 활동에는 성공, 성장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생각이 담긴 에세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측면이다. 만약 활동가들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성공이라고 이해하여 좌절을 성공의 일부로 편집하여 썼다면, 그 에세이는 성공의 기록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세이는 달랐다. 일할 때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공으로 기록하면서도, 좌절로 주저앉았던 시간은 그 자체로 나타났다. 실패는 실패로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활동가들은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인생할 필요는 없다. 걸음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어떻게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침착한 서술이 있었다. 만약 어디에 제출해서 예산을 받기

위한 지원서라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쓴 에세이는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순간이 한번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정직하게 써야 할 대목은 관계이다. 관계는 활동가로 살면서 수행했던 많은 일들의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삶은 가족, 친구, 연인과 배우자,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웃 등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았다. ‘슬픈 카페의 노래’라는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그녀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만들어 재산을 불려갔다. 이웃 마을에 곱창과 소시지를 만들어 팔았다. 그녀가 만든 사탕수수 당밀은 짙은 황금색을 띠면서 아주 섬세한 맛을 냈다. 그녀는 목수 일에도 능해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불과 2주일 만에 가게 뒤에 벽돌로 된 화장실을 짓기도 했다. 확실히 그녀에게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녀가 능숙하게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들과의 인간적 관계였다. 사람들은 물건과 달라서 이리저리 손을 댄다고 해서 순식간에 더 쓸모 있고 이윤이 나게끔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곱창과 소시지를 만드는 기술은 연마할수록 꾸준하게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관계의 기술은 꼭 그렇지 않다.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으며 좋은 삶을 가꾸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서툴렀었다는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였다. “나를 꿰뚫어보는 아이들의 직관적인 감각들이 위선적인 나를 여지없이 흔들었다.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다. 내 안의 외면했던 상처들이 드러났다. 뒤엉킨 관계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없었다. 긴 시간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36-37). 자신의 못났던 모습에는 부끄러움이 생긴다. 서툴렀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슬픈 일이다. 좋은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잘

되지가 않았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 같았다. 고통은 돌봄이라는 자신의 선한 의도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 수는 없었다. 시간은 모든 것의 시금석이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무력감을 온전히 깨닫게 되자, 관계는 새롭게 보였다. “그러나 떠날 수 없었다. 그림자가 있었던 순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문장을 성공의 자부심이 어린 문장으로 읽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체적인 관계에서는 또 다른 관계의 입체적인 서투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에 대해, ‘성공의 그림자’라는 생각을 버린다면 실패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실패의 기록은 다른 쪽을 향해 문을 연다. 자기 특유의 것들, 활동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낙천성, 다소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구석, 개성 등이 성공에 대한 부담 없이 서술될 수 있다. 이런 서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다. 인격이란 뉘뉘이가 아니다. 인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의 이미지로 사는지에 대한 반복적 기술작업이다.

단체의 기록물이 기록기술서를 요구한다면, 그 단체에 속해 일했던 활동가의 삶은 이야기 기술서(narrative description)를 요구한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로 풀어 쓰는 것이 이야기 기술서이다. 아카이브 워크숍에는 두 개의 기록서가 필요하다. 단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기술서는 잘 정리된 한 장으로도 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기술서는 쓰는 순간마다 새롭게 써야한다. 만약 10년 후에 아카이브 워크숍을 다시 한다면, 이번에 정리했던 단체 기록물의 기록기술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 개인의 이야기 기술서는 다시 써야한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하는 회상을 할 수는 있지만, 10년 동안의 새로운 발바닥이 그 사람을 다른 곳에 데려다놓았으니, 그 곳에서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써야 한다. 이야기 기술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이다.

5. 쓰기의 이미지 : 맺음말을 대신하여

기록관리와 쓰기의 공생적 상황에 대해 썼다. 글의 바탕에는 세 개의 이미지가 놓여 있다. 어떤 이미지를 바탕에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하면서 논의를 정리한다.

첫째, 동무 이미지이다. 동무는 친구의 옛말이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어감이 좋은 말이다. 동무라는 말에는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정치적 함의가 들어 있다. 동무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덕목이다. 동무에는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무는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동료, 동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록 일을 하면서 같이 머무는 사람들을 동무로 이해할 수도 있다. 기록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동무로 대하면서 일을 해보려는 것은 하나의 기록실천이다. '기록은 관계에서 나온다, 좋은 관계에서 좋은 기록이 나온다'는 순환적 정의에 따를 경우, 기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동무가 대하면서 좋은 관계를 전망하고 실천할 수 있다. 동무-관계에서 좋은 삶에 필요한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비서관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동무의 이미지로 서로 만나 일을 함께 하고자 하자,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대통령기록, 특히 대통령의 말과 생각의 기록화는 이런 동무-관계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다룬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워크숍은 일종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은 불평등의 관계에서 나올 수 없다. 서로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 시민활동이 가능해진다. 활동가들은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동무로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는 이런 동무-관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공공아카이브의 기록서비스 순간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아카이브 종사자와 아카이브를 방문한 시민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관계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아닐까. 또는 민원이 아닐까. 동무 이미지로 서로 만날 수는 없을까. 이 점은 공공기록관리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기록이 존재하는 곳에 동무도 존재하기를 바란다.

둘째, 이세신궁 프로젝트 이미지가 있다. 이세신궁(伊勢神宮)은 일본 혼슈(本州)에 있는 신궁이다. 일본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신궁은 일본인들에게 '일본적인 것'을 고수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세신궁은 이런 신궁들의 신궁 같은 곳이다. 이세신궁의 이런 정치적 의미와 별개로 이세신궁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붙어 있다. 그것은 20년마다 이세신궁을 새로 짓는다는 점이다. 원래의 건물을 헐어내고 심지어 장소까지 옮겨 새로 짓는 일을 20년마다 반복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 기술'을 전승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7세기(690년)에 처음 지어진 이세신궁은 이후 20년마다 지어져서 2013년에 62번째로 지어 졌다(엄기호, 2014).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세신궁 이미지는 기록관리의 기술과 경험을 사회에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이미지이다. 이 글은 기록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쓰기를 다뤘다. 기록관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록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정보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건물/서버에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기록관리가 지난 20년 동안 해온 일이다. 그런데 기록관리에 이런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록관리는 생활세계에서 좋은 삶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기록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의 기술과 경험을 사회의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 그 자체의 직접적 적용보다는, 표준을 참조하여 변용하려는 노력, 기록관리를 현장에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세신궁 이미지가 요청된다 하겠다. 아

카이프 워크숍은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는 기록관리 현장이다.

셋째, 미토콘드리아 이미지가 있다. 생물학에서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육체적으로 접촉하면서, 심지어 상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개체성은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출현했다. 공생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원천이다. 식물의 경우, 뿌리와 곰팡이가 결합된 균근 덕분에 황량한 육지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식물은 균근 덕분에 몸에 수분을 보존하면서 습한 환경을 창조했다. 인간도 매순간 반응하는 미생물들이 수십 억 년에 걸쳐 상호작용한 과정의 산물이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특정 세균이 세포로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통합되어 공생하게 되면서 색소체(식물)와 미토콘드리아(동물)가 되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호흡과 에너지 생산을 담당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의 DNA 유전과 별개로,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된다(Lane, 2006. Margulis, 1998).

미토콘드리아는 쓰기의 이미지이다. 기록관리와 쓰기가 공생하는 상황에서 쓰기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가 단독으로만 있다면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겠지만, 쓰기와 공생하는 상황에서는 관계적 가치도 함께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글에서는 부탁, 안부, 관찰, 대화만을 다뤘지만 관계적 가치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계적 가치는 사람을 호흡하게 하고 개성을 발달시키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한다. 쓰기와 기록관리의 공생적 상황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금연 외 88명 (2015). 시가 뭐고? 서울: 삶창.
- 강봉수 외 118명 (2016).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 칠곡 할매들 시를 쓰다. 서울: 삶창.
- 문재인 (2011). 문재인인의 운명. 서울: 가교.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안산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안산시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엄기호 (2014). 단속사회. 파주: 창비.
- 윤태영 (2014a). 기록. 서울: 책담.
- 윤태영 (2014b).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서울: 책담.
- 윤태영 (2016). 대통령의 말하기. 고양: 위즈덤하우스.
- 이연창 (2022).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대학원.
- 이영남 (2019). 대통령기록혁신의 과정과 의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혁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No.9.
- 조영삼 (2011).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 기록정보 과학대학원
- 최문철 (2019). 텃밭농사와 기록농사. 민들레, 124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기본편. 홍성: 그물코
- Lane, Rick (2006). Power, Sex, Suicide: Mitochondria and the Meaning of Life (Seco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김정은 (2009). 미토콘드리아. 뿌리와 이파리)
- Margulis, Lynn (1998). Symbiotic Planet a New Look At Evolution. Trafalgar Square(이 한음 (2007). 공생자 행성. 사이언스북스).
- Rosenberg, Marshall B. (2015).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3th ed.). Encinitas: Puddle Dancer PRESS(캐서린 한 (2017). 비폭력대화. 바오).
- Fromm, Erich (2006) The Art of Love(Anniversary ed.).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황문수 (2009).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 Ketelaar, Eric (2021). Communities and the duality of digital curation(에릭 케텔라르 (2021). 디지털 큐레이션과 공동체: 인간과 아카이브의 상호 구성. 한국기록과정정보·문화학회.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13권).
- Illich, Ivan, & Sanders, Barry (1989). ABC: Alphabetization of the Popular Mind. Vintage (권루시안 (2016).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되다. 문학동네).

- Schattschneider, E.E (1960). The Semi-Sovereign. Holt, Rinehart and Winston(현재호 외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 Schumacher, E.F. (1979). Good Work, HARPER COLOPHON BOOKS(박혜영 (2011). 굿 워크 Good Work, 느린 걸음).